

『취학전 및 초등학교 영재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

선 병 은(부산광역시 교육청)

I. 앞 말

1. 『영재교육』의 의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계발하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인간존엄성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사회 복지와 인류행복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요청이며, 인간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요청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

2. 『영재교육』의 논의에서 우려점

가. 「영재아」라는 말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문제, 「영재」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하며, '영재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다양한 개발화된 교육과정과 제도·행·재정적 뒷받침을 전제로 영재아와 지진아가 다같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전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영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에서 가능할까'라는 우려에 대하여 잠재된 영재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에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재정, 교사교육 등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다. 초등학교 초기 입학 및 월반제도에 관하여

1) 조기입학제도는 초기 경험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부적응·자퇴아 문제 등을 지적한 우려점 제거를 위해서 대상자의 적절한 판정 절차 및 방법의 연구와 조기 입학아의 적용지도 연구 등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심도 깊은 연구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월반제는

가) 우리 교육과정이 수평적·수직적 풍요화의 결핍

나)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

다) 모든 교과에서 우수한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에 대한 배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에 공감하면서 이 문제 해결은 교육개혁과제 추진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풍요화, 융통성 있는 운영, 정서교육, 사회화 교육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하여 우려되는 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며, 무학년제 도입도 충분히 연구 검토할 제도라고 생각된다.

II. 몇 가지 제언에 관하여

1.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집단의 장학제도 전환 제의

2. 무학년제 도입 제의

3. 다양한 교육심화 프로그램 및 풍요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의와 영재 교육 과정은 아동이 학년, 연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습 내용에 접할 수 있게 개방적이고 다양한 흥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육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며, 교사의 역할은 직접적인 감독·지도보다는 보조자로서 학습에 자극을 주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라

<영재교육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리>로써

1) 주제관련 학습 2) 과제중심 학습 3) 활동중심 교육과정

4) 개방적인 교육과정 5)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 중시

등의 원리는 열린 교육·열린 수업에서 '호기심,' '창의성,' '변화에 대응하는 열린 마음,'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도와주는 학습원리와 상통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III. 맷음말

잠재적 능력이 많은 영재들로 하여금 조기에 그들의 능력이 발굴되어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계속적인 교육적 관심과 격려와 그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